
한국인의 심성: 원한과 복과 복조리

김열규 · 서강대 명예 교수

한국인이 누군가?

이 같은 물음, 그나마 심리나 심정 그리고 감정 등, 인간 내면성과 관련해서 이 같은 물음을 따지고 들 때, 한국인의 원한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아주 요긴할 것이다. 그건 그 방면 물음을 켤 때, 원한은 으뜸 자리를 차지할 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원한으로 눈도 못 감는다.’

‘한으로 맺힌 가슴.’

이것은 한국인이 그들의 지극한 트라우마, 이를테면 마음의 상처를 애깃거리로 삼을 때, 흔하게 쓰는 말이다.

‘원도 한도 없다.’

이건 한국인이 그들의 완벽한 만족을 일컬어서 그리고 삶의 보람을 다지면서 자주 쓰는 말이다. 삶의 음지도 양지도 꼭 같이 원한에 걸려 있다.

한데 원한이 한국인의 감성(感性)임을 전제한다면 그 감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논지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감성이란 개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한에 관한 논의는 시작되어 마땅할 것이다.

객체를 정서, 감정, 감각 등으로 수용하고 지각하는 능력이야말로 감성일 것이다. 그와 함께 그 같이 수용하고 지각해서 형성된 지각의 내용 또한 감성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지성, 오성, 이성 등과 상대적으로 대립될 개념인 감성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며 감각으로 객체를 수용하고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로 해서 형성된 정서며 감정 또한 감성으로 이해되어도 괜찮을 것이다.

‘애달픔’, ‘서러움’, ‘애꿔음’, ‘알꿔음’ 등등 이들 순연한 우리말은 모두 우리의 정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도 좋은 만큼 순연한 내림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감성이라고 보아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다.

가령, ‘서러움’과 ‘애달픔’은 근대로서는 김소월에서 비롯해서는 오장환, 김영랑, 신석정, 박목월, 서정주에 이르도록 우리 시가 담아 낸 가장 한국인다운 서정이자 감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요로는 ‘아리랑’이 ‘서러움’과 ‘애달픔’의 노래로 지적될 수 있다면, 아리랑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근대시의 전통을 짚어 내게 될 것이다. 뿌리 캐기로는 또 다른 시각이 보람을 건게 된다. 비록 낱말을 시의 문맥에서 보아 내지는 못해도, 고려 가요에까지도 이 시적인 감성은 소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청산별곡’은 대변자가 될 것이다.

시만은 아니다. 소설에서도 적잖은 작품을 두고도 애달픔과 서러움을 논란할 수 있을 것이다. ‘배따라기’(김동인)를 전형적인 보기로서 맨 앞에 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도 ‘운수 좋은 날’(현진건), ‘꽃신’(김용익), ‘혼불’(최명희) 등등을 열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한국 문학 전체에 걸친 가장 전형적이고도 대표적인 정조로 또 감성으로

‘서러움’과 ‘애달픔’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한국 문학의 감상주의 또는 센티멘털리즘의 미학을 형성하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서러움’과 ‘애달픔’은 문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 전체에서 또 그들 삶의 역사에서 총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이와 같은 서러움과 애달픔의 당연한 연장 선상에서 우리들은 원한을 논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적인 생채기이자 감성의 상처가 다름 아닌, 원한이다.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한국인의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아픔의 감성이고 쓰라림의 감성이다. 마음의 상처다.

그것은 신화, 전설, 민속, 무속신앙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 노릇을 맡아 내고 있다. 신라시대만 해도 박제상의 부인에 관한 전설은 원한의 결정(結晶) 같은 것이다. 이와 나란히 원한의 미학, 원한의 서정은 이 땅의 문화 일반과 문학에서 역사적인 주류로 흐르고 또 전승된 것이다.

우리는 ‘서러움’이며 ‘애달픔’에 겹쳐서 원한을 한국인의 감성으로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국인의 ‘정’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정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한국인의 감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을 인정으로 좁혀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정은 곧 정감과 동의어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에 사무쳐서 세계를 보고, 정에 겨워서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인정을 말하는 한편으로 물정(物情)이며 세정(世情)을 말해 왔다. 한데 사물이며 세계에서 또는 남에게서 얻는 것으로 정은 끝나지 않는다. 사물을 보고 세계를 이해하고 남들을 인식하고 하는 작용도 정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넓은 뜻의 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문학에서는 그 명제가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시적 자아와 세계 및 사물과의 정의 교감 없는 서정은 한국의 시에서는 생 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한은 이 같은 뜻의 정의 상처다. 아픔이다. 따라서 원한은 한국인의 세계관에 그리고 인생관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에 생긴 상처, 사물이며 남들을 이해하는 심성에 생긴 상처, 그것이 곧 원한 이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에서 바로 한국인은 보는 눈은 복으로 옮겨져야 한다. 원한과 복, 그 둘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원한은 그들 마음의 음지다. 이에 비해서 복은 마음의 양지 다. 서러움과 애달픔을 가진 마음의 아픔을 말끔히 다스린 끝에 한국인은 복을 누리게 된다. 복조리에 가득가득 복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한국인 의 복을 말할 때, ‘복조리’의 상징성은 크게 빛을 발하게 된다.

‘복조리’

그것은 이제는 사라져 간 보물이고 귀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복 이 조금은 멀어져 가지 않았을까 해서 마음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의미며 상징성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복을 말할 때, 빠뜨릴 수가 없다.

‘복조리 사세요!’

선달그믐 날, 장사꾼들이 마을을 돌면서 외쳐 대던 그 소리!
그것은 저무는 한 해를 보내면서, 복되게 , 복스럽게 동터 오를 새해, 새 아침을 일깨우는 소리였다.

‘복조리 사세요!’

그것은 ‘복 소리’였다. 복음(福音)이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복조리를

몇 개씩 샀다. 그걸 정월 초하룻날 새벽, 마루 끝에, 방문 앞에 그러고도 모자라서 부엌문에 정갈하게 또 간절하게 모셔 받들었다. 그들은 덩그러리게 또 높다랗게 섬겨져 있었다.

왜 그랬을까? 조리에 가득가득 복이 담기라고 해서 그랬던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구실이 복주머니며 ‘복 단지’ 따위의 소임과 별로 다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고운, 아리따운 소망이 거기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조리는 쌀이나 곡식을 이는 데 쓴다. 실한 알곡만을 골라내는 데 쓰인다. 하지만 그 방식이 특이하다. 조리에 알곡을 담는다. 그런 채로 향아리나 큰 그릇에 췌 맑은 물에 담근다. 그러고는 조리를 찰랑찰랑 또는 철썩철썩, 흔들댄다. 그러면 곡식 껍질이나 먼지며 온갖 잡것들이 조리 틈새로 빠져나간다. 그 동작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꺾듯이 해 낸다. 그래서 말끔하게 알곡을 씻어 내고 걸러 내고 또 가려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조리의 구실이다.

그렇듯이 복조리는 복을 걸러 내어서 우리들 마음에 맑게 곱게 담아 두자는 것이다. 마음에 낀 별의별 티를 털어 내고 우리들 삶과 목숨에 눌러 붙은 온갖 때만이 아니라, 때깔까지 두루 씻어 내어서는 우리들 마음과 목숨을 거르자는 것이다. 그건 필경 ‘자기 정화(淨化)’의 작업 같은 것이다.

요컨대 마음과 목숨에 낀 때뽕재기를 깔끔하게 밀어내고 또 그 땃물을 씻어 내고는 그 자리에 맑은, 정갈한 복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복조리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다. 그게 복조리의 거룩함이고 성(聖)스러움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과 목숨을 위한 복조리였다. 거기 삶을 맑게 정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축원이 어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마음과 목숨에 또 세상살이에 비로소 복이 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은 덕(德)과 겹친다. 깨끗하게 티 없는 마음이며 인품이 덕일

진대, 복조리에 담긴 복은 필경 덕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복과 덕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복덕(福德)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복을 누리자면 먼저 인격을 닦아라!’라는 그 귀한 가르침이 ‘복덕’에는 메아리치고 있다.

그런 고운 다짐 두고서 복조리를 부엌문에 방문에 그리고 마루 끝에 모시고 섬기고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월 초하루 아침에 우리 옛 어른들은 ‘복쌈’을 싸 잡수셨다.

복쌈은 말렸다가 대쳐 낸 나물에 밥을 찐 쌈이다. 복을 온 배 가득 삼키자는 것이다. 식복(食福)만이 아니다. 오복(五福)을 고루고루 쌈으로 싸서 소화해 낸 것이다.

복조리에 담긴 정신까지 생각하게 되면, ‘복쌈’ 먹기 전에 미리 ‘덕쌈’을 옛사람들은 잡수신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는 원한이 씻어지고 서러움이 행귀지기를 바랐던 것이다.